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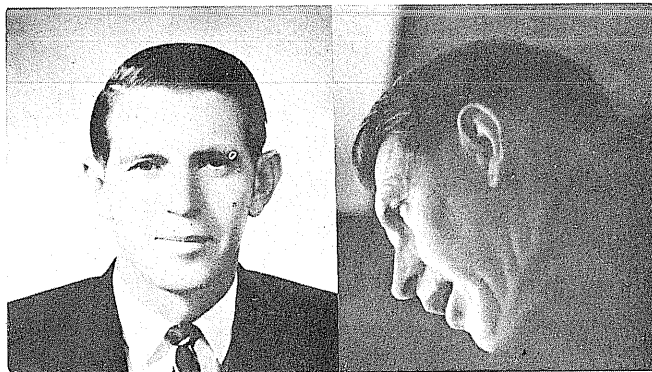
## 여수지역 지부로 승격

오랫동안 지역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던 여수 지역이 지난 6월 11일 지부로 승격되는 기쁨을 맞게 되었다.

선교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여수 지부는 여러가지 어려운 지역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커다란 발전을 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이토록 지역이 지부로 승격되기 위하여 이 배인 지부장 과 유금남 제1보좌 김 태봉 제2보좌와 여러 형제, 자매들의 끈질긴 노력이 함께 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선교부장단과 호남 지방부장단을 비롯하여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으며 지부 형제 자매들은 더욱 지부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 할 것을 다짐했다.



### 팔머박사 일행 내한

우리 나라에서 2대 산교부장을 역임한바있는 팔머 박사가 아시아교육 자원 조사차 지난 6월 5일 오후2시 20분에 KAL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부릿치 박사와 힐람 박사, 빌교수와 천 낙서 형제를 대동하였으며 본부의 아시아 교육 자원 조사의 책임을 맡고 일본을 거쳐 내한한 것이다.

이번 자원조사 대상국은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및 홍콩으로서 교회 본부가 아시아 지역의 회원을 상대로 줄 수 있는 가능한 교육을 통한 도움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일행은 이주일 동안의 긴 여정으로 한국의 제반 교육 사정을 조사하고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많은 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지방별로 지도자와 회원들을 상대로 철저한 여론 조사를 하였으며 18일에는 특별 노변의 모임을 갖는등 다채로운 모임으로 성도들을 즐겁게 했다.

그는 오랫동안 온 한국이 여러면에서 발전을했고 특히 성도들이 많이 발전하여 한없이 기쁘다고 그의 사견을 털어 놓았다.

그는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모든 성도들을 만나고 의견을 나눈뒤 지난 19일 오후 5시10분 CPA기 편으로 타이페이로 향해 서울을 출발했다.

## 청주 지역 탄생

지난 5월 16일 충청북도 청주에 새로운 지역이 탄생 되었다.

아직 한번도 선교사의 손길이 뻗히지않은 청주에 선교 활동이 시작된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이제 채 한달 반 정도인 청주지역의 주일학교만 보더라도 약 20여명의 구도자가 참석하는 등 청주 지역의 앞날은 밝기만 하다.

### 마산지부 가정복음 100%

이오 영규 지부장이 이끄는 마산지부의 가정복음 실적이 100프로에 도달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정 복음이 마산지부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유대도 특기할만 하다. 마산지부에서는 얼마전에 가진 지부장단의 개편에 이어 지난 아론신권 회복 기념일에는 아론신권 기념 배구대회를 가져 회원들의 친선을 한층 더 도모시켰다.

### 청운지부 건축모임 활발

청운지부 회원들의 오랜 숙원이든 청운지부의 건물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

약 95프로의 공정으로 마감을 서두르고 있는 새 건물은 청운지부 회원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공사장에 나와 일을 하였으며 서 원 형제는 중상을 입는등 억척스런 그들의 열의를 나타냈다.

이제 서울 서 지방부 센타가 되기도 할 청운지부 건물은 새로운 현대적 시설로서 칩레탕, 상호부조회실의 조리시설, 좋은 난방시설과 흡입타트, 양식화장실 등 견고하고 다양하게 설계, 시공되었다. 상호 향사회 홀과 예배당은 커튼으로 막아서 쓰게 되었으며 새로운 건물로서 청운지부 회원들은 노동의 참된 가치를 느끼게 되었다.

건물은 9월초에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 영남 지방부 상호 향사회, 음악과 연극의 밤 갖다.

## 재미 물몬들 “한국의 밤” 갖다

지난 7월 8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항도 부산에서는 영남 지방부 상호 향사회 주최, “상향회의 무대”라는 제목으로 전 부산 시민을 상대로 음악과 연극의 밤을 가져 부산 시민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었으며, 영남 지방부의 큰 움직임을 타 지방부에 과시한 모임이기도 했다.

이번 모임의 순서를 보면 1부가 음악 순서, 2부가 연극 순서로서 음악순서는 합창, 피아노 독주, 이중주, 발레, 독창, 선교사 순서 및 “다 함께 노래”라는 프로그램으로 무척 다양하고 재미있는 모임으로 부산 시민들을 열광케 했으며 2부순서인 연극은 러시아의 희극작가 안톤 체홉의 “꿈”을 박창씨의 연출로 상향회 연극부가 맡아 훌륭한 연기를 보여 주었다.

이날 모임에 관하여 예총 부산 지부장으로 계신 허 창씨는 “아마도 부산에 향토문화의 새순이 돋으려는 징후이려니” 하고 그의 기대를 나타내고 “놀랍고 대견스럽다”면서 계속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런 상향회 발전을 위해 선교부 상향회 회장이 연극을 참관하여 격찬해 주셨으며 또 장 재환 지방부장이하 여러분이 축하해 주셨다.

훌륭한 팸프렛과 함께 모임을 준비해주신 지방부 상향회 직원들과 회원들께 많은 발전이 있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이번 모임에는 약 1,000여명이 관람해 주셨으며 범 시민적으로 벌린 이번 모임이 성공적이었음을 덧붙인다.



또 지난 6월 4일 지방대회를 갖은 영남지방부는 이를 후인 9월 6일에 지방부 상호 향사회 주최로 발전과 단결을 다짐하는 동래 금정산 하이킹 모임을 가졌다.

이번 하이킹에는 8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서로의 신앙과 사랑을 대자연 속에서 나누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다고들 한다.

또 영남 지방부장이신 장 재환 형재를 비롯한 지방부 역원들은 역경에 부딪치는 어려움 또한 크지만 지방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방부 소식을 덧붙였다.

사진은 금정산 피크닉모임에서

지난 7월 15일 쏘트 레이크 시에서는 한국인 물몬과 선교사로서 한국을 다녀간 여성성도들이 한데 모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밤”모임을 가졌다.

이날 메뉴에는 불고기, 갈비찜, 잡채, 김치, 밥, 아이스크림, 약밥등으로 조국의 정취를 맛볼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에는 한국 민속무용, 한국가곡, 태권도시범 및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의 여행,,”이라는 20분짜리 영화도 곁들여 조국의 강토를 한 눈에 보고 향수에 젖기도 했다.

이날 모임을 준비해 주신 분들로는 전 선교부장 이셨던 스로버 형제님과 윤 화중 형제, 서 상옥 형제, 배 수열 형제 김 성완 형제 황 충열 형제, 안 승언 형제 외에도 우리와 함께 하던 여러 형제 자매들이 많은 수고를 해 주시므로서 한국을 알리는 좋은 모임이 되었다.

이들은 멀리 한국에 계신 형제님들 못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조국을 위해 노력한다면서 그들의 안부를 전해 왔다.

## 번역 출판부 새로운 건물로

1969년 12월 15일에 기공식을 갖고 1970년 5월에 착공을 한 한국 번역 출판부 건물이 준공되어 지난 7월 4일부터 새로운 건물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약 2년 2개월에 걸쳐 완공된 이 건물은 1층에 인쇄실, 재판실, 제본실 및 창고와 2층은 번역을 위한 사무실과 판매부, 촬영실, 성도의 벗 및 그 외에 필요한 제반 작업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인쇄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화물용 에레베이터가 설치되어 능률적인 작업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불편했던 구 건물에서 일해오던 번역사들은 이제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어 주님의 사업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다고

새로운 건물의 완공으로 인하여 번역 출판부에서는 이제 보다 정확하고, 빠르고 많은 자료를 성도들에게 공급하게 되었다.

## 기타 소식란

○ 오는 9월중에 초등학교 및 상호부조회 본부직원 방한 예정

○ 9월 7일, 8일 양일간에 걸쳐 십이사도 보조로 있는 헤이트장로가 일본에서 있는 지역모임에 참석하고 한국에 들릴 예정

○ 7월 20일 오후 4시 25분 본부 계보협회의 오손 형제가 CPA기 편으로 내한, 마이크로 필름 촬영 준비로 얼마동안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다.

